

스스로 세상에 뿌려져 자라는 풀처럼, 꽃처럼

장애인 화가들의 그림공간 '소울음' 과 최진섭 화백

장애인들의 그림공간 '소울음'. 청각, 정신지체,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모여 붓을 입에 물고, 발에 끼고,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에 고정된 채 그림을 그린다. 이들의 캔버스에는 장미 한 송이가, 하

얀 눈으로 덮인 시골풍경이, 뇌성마비인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 그려져 있다. 이 공간을 처음 연 사람도 장애인이다. 전신마비 장애인인 최진섭 작가는 1992년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공간을 만들었다. 그에게 예기치 못한 장애와의 만남, 그리고 뒤이은 그림과의 만남, 소울음의 탄생, 장애인미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물어보았다.

글 김희경 큐레이터 | 사진 박정훈



문화예술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유화 재료에 이젤, 캔버스에... 언뜻 보기에는 보통 화실 같은데요.

최진섭 화실은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작가가 되기 위해 수업 받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엔 없는 공간이에요.

문화예술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최진섭 동아리처럼 취미로 하는 곳은 10여 곳 있지만 여기처럼 작가들이 모여서, 아니면 작가가 되기 위한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없다는 얘기죠.

문화예술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소울음이 무슨 뜻이죠?

최진섭 깨달음... 소울음은 순우리말로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구전되어 내려오는

동양철학 용어예요. 깨달음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뭉가를 깨닫는 공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여기에 오는 장애인들은 청각장애, 정신지체, 뇌성마비, 전신마비 같은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방바닥에 누워 천장만 보면서 10년씩, 20년씩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도 닦은 사람들이예요. 그렇지만 혼자 도 닦은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미술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과거의 내 모습을,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그림 그리는 과정이 작가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 제가 언뜻 봐도 공간이 상당히 큰데요, 여기엔 어떤 방들이 있나요?

최진섭 반은 그림 그리는 작업실이고요, 반은 먹고 자는 공간이에요.

문화예술 아, 여기서 선생님과 함께 사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몇 분이나 계시죠?

최진섭 최근에는 6, 7명 정도인데... 근데 날마다 달라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서울과 가까운 안양이다보니 잠깐씩 들르는 장애인분들도 많으시고요, 여기 회원이 100명이 넘거든요.

문화예술 말하자면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셈이네요. 작가들에게 작업할 공간뿐만 아니라 잠잘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최진섭 여긴 24시간 열려 있어요. 시간제한이 없죠. 또 함께 먹고 자고... 저랑 같이 있는 현성이(뇌성마비)나 봉권이(뇌성마비)는 거의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꼬박 그림을 그려요. 재밌는 것은 이곳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와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아주머니들도 오시고, 대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장애인 봉사자 교육을 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중고등학생들이 이곳에 봉사하러들 오거든요. 학생들이 구족화가들을 신기해하길래 한번은 현성이처럼 입으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본 적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해보더니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발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재밌어할 하기도 하고... 서로 어울리다보니 장애인과 친해지기도 하고,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곳은 딱히 장애인만의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24시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 있더라고요.

문화예술 아주머니나 대학생들에게 그림 가르쳐 주시고 수강료 받으세요?



최진섭 하하, 수강료는 무슨... 오히려 재료를 주죠.

문화예술 보니까 캔버스도 큰 것들을 많이 쓰시고요. 붓이며 유화물감이며, 재료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최진섭 다행인 건 석유공사 같은 곳에서 한 달에 얼마씩 재료비를 후원해주세요. 그래도 사실 빠듯하긴 해요. 솔직히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더 있으면 싶죠.

문화예술 처음에 소울음 작업공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왜 만드셨나요? 그냥 혼자 그리셔도 됐을 것 같은데요.

최진섭 같이 지내면 좋지 않을까, 작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림을 그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였어요. 소울음이라는 이름은 원래 첫번째 전시의 타이틀이었어요. 1992년 10월에 <소울음 3인전>을 했거든요.

문화예술 보통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장애인인데 잘 그렸네, 특이하네, 하잖아요. 장애와 결부시켜서 작품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섭 우리나라에 장애인 작가가 한 400여 명 돼요. 그 중에서 전업작가들은 30~40명 정도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겠죠. 현대미술작가들, 그러니까 소위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술을 좀 넓게 논해 보자면, 사실 테크닉만 좋다고 해서 좋은 그림은 아니잖아요? 감각적으로 보거나 테크닉만 보지 말고, 영성한 선이나 힘있는 터치에서 나오는



입으로, 또 자유롭게 얹은 팔로 그림을 그리는 신현성(왼쪽) 씨와 전봉권 씨. '소울음'에서의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이들의 작품에는 다른 이들의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다.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하는 미술작품에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비장애 작가의 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다고나 할까. 이 사람들 누워서 20년 동안 도둑은 사람들이고, 고통을 나름대로 껴안고 이겨 낸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림에 배어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 그러면 선생님에게 미술은 뭐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진섭 나 같은 경우는 미술이 바로 삶의 목표예요. 장애가 있기 전에는 그림이라는 것을 몰랐죠. 지금은 이게 내 인생의 유일한 친구지만... 전 전시할 때,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의 작가일 뿐이죠. 나는 장애작가가 아니라 아티스트다, 라는 생각으로 작업하고 전시를 해요.

문화예술 아... 전에는 장애가 없으셨어요?

최진섭 고등학교 때 다이빙하다 다치는 바람에 경추 6, 7번이 손상됐어요. 그 뒤로 사지마비가 되었죠. 그런데 사고가 난 뒤에 의사들이 나에게 희망을 줬어요. 척수 신경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한 7년을 기다렸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몸이 안 움직이게 되니까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죽고 싶었죠. 아... 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눈은 뜨고 있는데,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살아야하나 싶었어요. 욕창 때문에 엄마가 몇 시간마다 몸을 뒤집어줘야 하는 처지가 되니까

인생이 뭘까, 고민하게 됐죠.

문화예술 그림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최진섭 제 기억으론 여섯, 일곱 살 때 처음으로 그림다운 그림을 본 것 같아요. 내 고향도 소울음이 있는 여기 안양인데, 그때 안양읍이었죠. 여기 포도밭이었어요. 운이 좋았던 게, 이런 시골에 화가가 우리 앞집에 살았더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유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제가 그걸 보고 자랐죠.

문화예술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린 건 언제부터인가요?

최진섭 어느 날 팔이 아주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은 손가락에 연필을 끼고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문화예술 독학하셨어요?

최진섭 아뇨. 전공하신 분께 배웠죠. 아버님 덕분이에요. 택시운전 하시면서 장애인 아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림 처음 시작할 땐 미술 선생님을 집에 불러주셨어요. 이 일을 시작하게 도와주신 분도 아버님이세요.

문화예술 아, 제일 큰 후원자셨네요. 아버님 말고도 소울음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최진섭 밥해주시고 사무를 봐주시는 자원봉사자들부터 빵 사오시는 분, 머리 깎아주시는 분, 목욕시켜주러 오시는 분, 이름 모를 후원자들... 너무 많죠. 감사해요. 또 요즘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기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어요.

문화예술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는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365일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후원자들도 들쭉날쭉할 테고요. 지속적인,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진섭 맞아요. 저희한테 동정으로 돈을 주는 것 말고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의 1%는 반드시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일부분을 장애인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또 문화관광부에서 장애인 작가를 위한 봉사자를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곳에 전담봉사자가 한 명 나와 있어요. 이것이 시스템화가 되어서 자원봉사자만으로 채울 수 없는 손길을 정책으로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학 때는 학생들이 많이 도와주러 오고, 대

기업에서 한 달씩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줄 때도 있고, 생각날 때마다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비는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 미술복지를 위한 전담기구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 네, 그래야 장애인들의 문화접근성도 좋아지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올해 전시계획이 있으세요? 야외스케치도 나가신다면서요?

최진섭 9월에 안양에서 <소울음전>이 있고, 10월에 안양 시민의 날에도 전시가 있고요. '행동하는 의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전시도 해마다 있고요. 단양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축제도 기획하고 있어요.

문화예술 전시랑 행사가 많으면 힘들지 않으세요?

최진섭 아뇨. 행사가 많아야 장애인들을 집에서 끌어낼 수 있어요. 장애인들, 특히 소울음에 오는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서 만날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 햇빛을 보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문화예술 소울음 공간 만들고 힘드실 때 있었어요?

최진섭 재료 살 돈이 없을 때, 나가서 풍경을 좀 그리고 싶은데 나갈 형편이 안 될 때... 그럴 때 힘들었죠. 우린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밖에 나가서 그린다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차량지원도 필요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요.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깐. 또 옥창이랑 세상이랑 싸우면서 그릴 때도 힘들었어요.

문화예술 10, 20년 뒤엔 소울음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으세요?

최진섭 지금도 많이들 이곳에 오고 싶어 하시는데 보다시피 여기가 2층이니 계단도 있고, 아직 시설이 많이 미비하죠. 활동하기 편하게 고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작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전국에 소울음이 몇 개 있었으면 싶어요. 소울음 사람들이 취미로 그림하는 줄 아시죠? 저희는 취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밥먹는 시간 이외엔 하루종일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작품성으로 인정받자는 게 저희 목표죠. 이곳에서 많은 장애인작가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만 장애인미술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더불어 정책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 선생님께선 요즘에 뭘 그리시죠?

최진섭 눈(雪)을 주로 그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죠.

문화예술 겨울에 내리는 눈을 여름에도 그리세요?

최진섭 겨울에 사진 찍어놓은 걸 모델삼아 그려요. 눈이 그렇게 좋아요. 말하자면 나 같은 조건이지. 춥고 바람 불고... 그런데 이걸 이겨내고 내릴 곳을 자기가 찾아서 들녘에, 산에, 시골농가에 내리는 게 바로 눈이에요.

최 작가는 자신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스스로 땅에 내리는 눈과 같다고 했다. 내가 보기엔 스스로 뿌려져 자라는 풀처럼 보였다. 최 작가도 푸르렀고, 그가 심어놓은 풀들로 인해 소울음도 이미 푸른 들판이 된 것 같았다. 이제 이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이 필 차례였다. 현성 씨도, 봉권 씨도, 광표 씨도, 철웅 씨도, 최 작가도 입에 손에 발에 가느다란 붓을 붙잡고 있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였다. 느리지만 즐겁게, 그들은 그렇게 취미를 뛰어넘고 있었다.

글쓴이 김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시각장애인예술협회 '우리들의 눈' 회원으로 서울맹학교 방과후수업 미술수업을 하고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의 프리랜서 미술관프로그램 기획자이자, AFI(국제작가포럼) 어시스턴트 큐레이터이다.